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헌재 출석... 내란혐의 전면 부인, '변론'보다 '지지층 결집' 주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실행할 계획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관련기사 3면>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은 변론이 아니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일방 메시지이고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예"라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비상 입법기구 설치 지시 쪽 지를 준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비상계엄 실행계획 없었다' 주장 재판 뒤 국군서울병원으로 이동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도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며, 포고령은 형식적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지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법조계는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 했다는 내란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도 언급하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 선거를 전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

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변론이라고 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극우 유투버 등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지지세력 집결을 통해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서면확인이나 나머지 증거 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추가 증인 채택 등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측은 증인으로 24명을 신청했다.

윤갑근 대통령측 변호인은 전날 "가능한 앞으로 있을 모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6시간 만에 접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 출범식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 위해 개헌 등 개혁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개헌을 비롯한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은 21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출범식을 열고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3 내란 이후 실현해야 할 이행기 정의와 민주주의의 복원은 진상 규명과 내란 수괴·공모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며 "선거, 자유, 평등, 속의, 참여 등 다양한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했다.

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원인은 개인적 특성보다 이른바 '명태군 게이트' 폭로 이후 직면하게 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책임자 체포 및 구속을 반대 입장을 보일뿐 아니라 '계엄 오류론', '미인지론' 등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탄핵 연대'에서 비민주당·반이재명 성향의 시민 이탈을 유도해 '이행기 정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면으로 계속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이은결 마술 강연

권일용 교수 김난도 교수 유현준 교수 서경석 MC 김동환 대표

고수들의 명강연...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3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2025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3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3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5년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2월 25일까지
- 수강료 : 55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23

光州日報社

KIA 김도영

5억원 재계약

▶18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OK! Now Jeonnam

전라남도

2025년 1월부터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1세(12개월)부터 18세까지 월 20만원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1세가 되는 생일달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정부24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내용
'24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생후 12개월이 된 아동	출생아동과 부모 모두가 함께 전남에 거주	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 *시군 형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